부산상공회의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5년 7월 24일(목) 배포즉시

담 당 :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영근 선임연구관(990-7056)

부산 '전기차 전문 정비인력 양성' 본격화

민·관·산·인자위 협력으로 전문기술인력 113명 양성 목표

- ▶ 고용노동부-기아-오토큐의 업무협약 기반, 과정평가형 훈련 운영
- ▶ 수료자 대상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오토큐 경력 인정 혜택 제공
- ▶ 훈련비 전액 국비 지원... 청년·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 참여 가능

부산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차 전문 정비인력 양성과정'이 본격 운영된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24일(목), 부산상의가 운영 중인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부산인자위")를 통해 오는 8월부터 '전기차 전문 정비인력 양성과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과정은 지난 4월 고용노동부, 기아, 오토큐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민·관·산·지역인자위 협력 모델이다. 전기차 정비 분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과정평가형 훈련 프로그램으로, 관내 훈련기관을 통해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 기술 인력 113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자동차 엔진 및 섀시 정비 ▲전기·전자장치 점검 및 수리 ▲전기차 결함 진단 및 검사 등 전반적인 정비 실무를 포함한다. 과정 수료자는 별도 평가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취득이 가능하며, 오토큐 채용 시 '사내 기술자격 레벨1'(2년 경력 인정) 혜택도 제공되어, 실질적인 취업 연계까지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훈련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며, 훈련장려금(월 11만 6천 원)과 특별훈련수당(월 최대 20만 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도 제공된다.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경력단절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다.

부산인자위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정비 전문인력 양성 과정은 탄소중립과 미래차 산업 전환에 대응하는 민·관·산 협력의 모범사례"라며, "실무 중심의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본 훈련과정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훈련기관(그린자동차직업전문학교, 부산자동차직업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첨 부 : 전기차 전문 정비인력 양성과정 개요 1부.

전기차 전문 정비인력 양성과정 개요

1. 훈련과정명

○ 자동차정비산업기사(과정평가형) 및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과정

2. 추진 배경

○ 고용노동부-기아-오토큐의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25. 4. 7.)'

○ 전기차 정비 분야의 인력난 해소, 교육-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3. 목표

○ 자동차의 엔진, 섀시, 전기·전자장치와 전기자동차의 결함이나 고장부위를 진단, 정비, 검사하고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

4. 지역 내 훈련공급기관

○ 그린자동차직업전문학교(사상구 모라동 소재): 3개 훈련과정, 훈련정원 90명

○ 부산자동차직업학교(서구 토성동 소재): 1개 훈련과정, 훈련정원 23명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정원
그린자동차직업전문학교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및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과정A	30명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및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과정B	30명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및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과정C	30명
부산자동차직업학교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및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과정	23명
계		**113명**

5. 훈련생 혜택

○ **(훈련비)** 1회 한정으로 훈련비 전액 지원(국비)

○ **(특별훈련수당)** 훈련장려금(월 11만 6천원) 및 요건 충족 시 특별훈련수당 추가 지원(월 20만 원)